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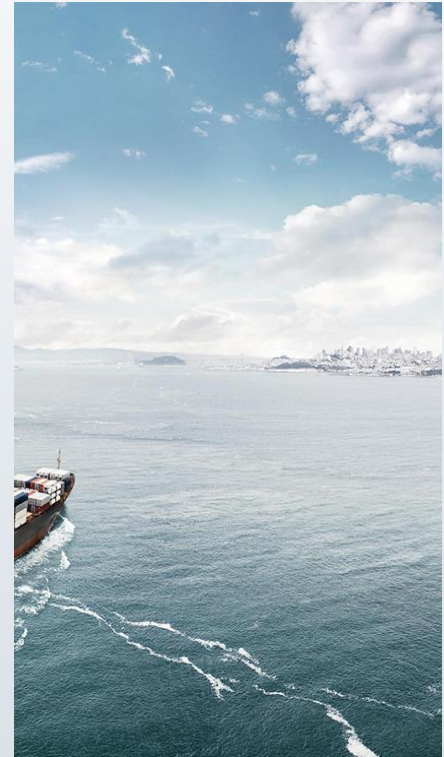


# STL MARKET REPORT

## Weekly Focus No.484

January 02, 2023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 Contents

News	1
Bulk Carrier	9
Tankers	13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7
Key Indicators	20
Issue & Trend	22
Contact Details	23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I . NEWS

### 1. '미친 인플레이' 진정세... 연착륙 신호인가 장기침체 서막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종료 뒤 2년여 이어진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2024년 세계 각국 경제 성적표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이 2023년 말 인플레이션 둔화(디스인플레이션)를 공식 선언했고 다른 주요국에서도 일제히 물가 상승률이 감소하고 있어 이것이 경기 연착륙의 파란불인지 경제 침체 늪의 서막인지를 두고 전망이 갈린다. 또 침체 장기화 등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한 주요국 대응도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美 경제는 연착륙 전망 우세

최근 주요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하락세다. 미국의 지난해 11월 CPI는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CPI 상승률이 6%대로 높았고,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 아래로 안정화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초엔 CPI 상승률이 정책 목표치인 2%대로 무난하게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월 유로존(유로화 사용지역) CPI 추정치도 전년동월 대비 2.4% 상승한 데 그쳐 10월 10.6%에서 꾸준히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 CPI도 근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중국의 경우 1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넘어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시장은 이미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선반영한 상황이다.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자 이날 뉴욕증권거래소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만 7000 선을 넘어섰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지수도 같은 날 일제히 급등했다.

이날 미 연준은 2024년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면서 연착륙을 향한 자신감을 보였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소와 소비자 실질소득 증가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경제는 연착륙의 길로 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도 19만 9000건 늘어나 예상 평균치를 18만건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연착륙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달 14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연준이 올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80.8%로 내다봤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11월 펴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는 예상되나 경제 침체는 없을 것"이라며 미 경제 회복세에 주목했다. 피치는 연준이 2024년 재정 완화 정책을 재개할 가능성이 큰 점, 소비자들의 초과 저축 의지가 높은 점, 민간 부문의 견고한 재정을 그

## I . NEWS

근거로 들었다. 피치는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이 2024 년에 시간차 효과를 발휘해 가계·실질소득을 약화시키겠지만, 2024 년에도 미국이 여전히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 ◆개도국·선진국 분위기 차이 두드러져

세계적으로도 2024 년은 디스인플레이션이 돋보이는 해가 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주요 국제 금융기구는 2024 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000~2019 년 연평균 성장률인 3.8%를 크게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IMF 는 2024 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7%, 피치는 2.1%로 예상했다.

하지만 경기 둔화는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주로 선진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IMF 는 분석했다. 미국이 선진국 중에서는 소비와 투자 회복으로 깜짝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유로 지역 성장률은 1.5%로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2023 년 강세를 보였던 서비스 산업이 2024 년에는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프랑스, 스페인 등의 경제 전망이 악화했고, 2022 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가 유로 지역에서 유독 컸기 때문이라고 IMF 는 분석했다.

부동산 위기로 디플레이션 위기에 처한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신흥 시장 경제는 상당히 탄력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IMF 는 2024 년 개발도상국과 신흥국 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특히 OECD 는 인도의 성장률이 고공 행진하며 2023 년 6.3%에서 2024 년 6.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투자 증가가 인도 경제를 견인하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하락 중이라 소비자 구매력 회복이 눈에 띈다는 분석이다.

IMF 는 특히 2025 년까지 실업률이 3.6%에서 3.9%로 매우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을 필두로 세계 경제 전망이 올해 연착륙 시나리오와 점점 더 일치하고 있으며, 여러 위협이 제기된 유럽조차도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연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OECD 도 세계 경제성장률이 2023 년 2.9%에서 2024 년 2.7%로 둔화하다가 2025 년 3.0%로 회복하며 경착륙 시나리오에 손을 들어줬다.

### ◆각국 저성장·인플레 대응은?

경기 둔화가 눈에 띄게 진행 중인 유럽을 중심으로 긴축 정책과 경기 부양책을 병행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금리 동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5.25%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은 경기 침체 대응책으로 내년 4 월 1 일 회계연도부터 법인세 총 270 억파운드(약 44 조원)를 감면할 예정이다. 영국

## I . NEWS

정부는 이 제도로 3년간 연간 3%의 투자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도 지난해 8월부터 2024년까지 연간 70억유로(약 9조원)의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위험이 있는 만큼 영국은 2022년 12월 10.5%에 달했던 물가상승률을 지난 10월 4.6%까지 줄이고 나서 이 같은 감세 정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2~2023년 스웨덴, 헝가리, 불가리아, 폴란드 등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비유로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연료 부가가치세를 인하했다. 영국은 지난 12월 연료 관세와 간병인에 대한 소득세 인하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계 주요국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2년 가까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IMF도 지난 10월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조기에 긴축을 완화할 경우 지난 18개월 동안 달성한 효과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며 디스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전까지 선부른 통화 정책 변경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IMF는 저성장 시기에 국가 재정 여력이 감소하면서 구조 개혁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신중한 구조 개혁을 통해 녹색 전환과 같은 장기적인 가치가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2023년 석유수출국기구(OPEC·오펙)의 정책 변화로 원유 가격이 급등했던 점을 지적하며 “지정학적 분열은 자제하고 글로벌 공동 번영을 촉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신뢰 회복과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 2. 미국 대활약에 기름·가스값 안정, 한숨 돌린 한국경제

원자재 시장은 2023년에도 연초 예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한 해를 지나왔다. 미국은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침체에 빠지지 않았고, 중국은 코로나 19 섯다운을 풀었지만, 경기는 빠르게 회복되지 않았다. 끝없이 가격이 오르던 친환경 관련 광물 중 일부는 공급과잉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은 더 이상 원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파도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미국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원유 생산량을 끌어 올렸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부문에서도 세계 1위로 올라서는 저력을 보이며 에너지 가격을 끌어내렸다. 덕분에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의 악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 I . NEWS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지난 한 해 원자재 시장에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주요 외신을 종합해 원자재 시장의 10 대 뉴스를 꼽았다.

### ①뭉치는 미국 석유기업, 분열하는 OPEC

미국 석유 업계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드라이브 때문에 다소 위축될 것이란 예상과 정반대로 르네상스를 맞았다. 미국은 압도적인 글로벌 1 위 석유 수출국이 됐고 에너지 기업들은 돈벼락을 맞았다. 미국의 에너지 대기업 엑손모빌과 셰브론은 초대형 인수합병(M&A)에 자금을 쏟아붓는 등 생산량 늘리기에 여념이 없다. 엑손모빌은 작년 10 월 595 억달러(약 81 조원)에 텍사스 퍼미안 분지 최대 유전을 보유한 파이오니어를 인수했다. 셰브론은 작년 11 월 가이아나 등의 해외 유전 사업권을 확보한 석유개발기업 헤스를 530 억달러에 인수했다. 반면 OPEC 는 담합행위를 했음에도 미국 때문에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했고, 결국 앙골라가 조직에서 탈퇴하는 등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 ②호주 천연가스전 파업에도 안정된 가스값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와 친환경 저탄소 흐름 속 석탄의 대체재 수요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천연가스 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나타냈다. 미국이 LNG 시장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서는 등 수출량을 늘린 덕분이다. 러시아에서 오는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던 독일 등 유럽 각국은 미국 천연가스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노드스트림 가스관 파괴 후 2022 년 8 월 MWH 당 339 유로까지 치솟았던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 32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과 일본 시장의 LNG 가격도 2022 년 100 만 BTU(열량 단위)당 최고 68 달러대에서 지난해 말 11 달러대로 안정됐다. 미국 석유기업 셰브론이 호주에서 운영하는 휘트스톤과 고르곤 가스전 노동자들이 작년 9~10 월 파업을 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럽 가스값이 MWH 당 50 유로대로 반등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 ③리튬 공급과잉과 가격 수직 낙하

'하얀 석유'로 불리며 각광받던 리튬 가격이 급락했다. 상하이 비철금속 거래 시장에서 탄산리튬 현물 가격은 T 당 8 만 6500 위안까지 떨어졌다. 2022 년 11 월 T 당 59 만 7500 위안까지 치솟았던 리튬값은 80% 이상 폭락했다. 전기차용 리튬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으나, 예상했던 만큼은 아니었던 반면 공급이 수요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내년 전망도 장밋빛과는 거리가 멀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 는 이달 초 전 세계 리튬 공급량이 올해 40% 증가해 탄산리튬 기준으로 140 만 T 이상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호주와 라틴 아메리카의 생산량은 각각 22%와 29% 증가하고 아프리카도 짐바브웨의 프로젝트로 인해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I . NEWS

### ④파나마 초대형 구리광산 폐쇄

캐나다 광산기업 퍼스트퀸텀미네랄(FQM)과 한국광해광업공단(옛 광물자원공사)가 천신만고 끝에 개발에 성공한 초대형 구리광산 코브레 파나마가 폐쇄 위기를 맞았다. 수개월에 걸친 시위와 정치적 압력 끝에 11 월 말, 파나마 대법원은 이 광산의 채굴 계약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정부는 광산 폐쇄 명령을 내렸다.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시위를 지지하고 광산 운영 중단을 촉구하는 동영상을 공유했다. 세계 구리 생산량의 1%에 달하는 35 만 T 의 물량 공급 차질이 예상되며, 기존 6%에 달했던 파나마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하향될 전망이다.

### ⑤사상 최고가 기록한 금

금값이 트로이온스당 2071.8 달러(뉴욕상품거래소 기준)로 2023 년 장을 마감했다. 금은 지난달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올해도 금값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중앙은행(FED)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달러화 약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중앙은행의 금 매수세도 강력하다. 공급 측면에선 세계 최대 금광기업 뉴몬트(NEWMONT)가 작년 11 월 호주의 대형 금광업체 뉴크레스트 마이닝(NEWCREST MINING)을 인수하면서 시장 지배기업으로 떠올랐다. JP 모간 체이스는 올해 4 분기 금값이 트로이온스당 2175 달러에 달할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루스 크로웰 런던금시장협회(LBMA) 대표는 “경제·지정학적 혼란 속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이 각광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⑥중요 광물 시장에서 힘자랑한 중국

작년 7 월 중국은 미국 및 유럽과의 기술·무역 전쟁 확대 상황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두 가지 금속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을 해외로 선적하기 시작하거나 계속하려면 중국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해외 구매자와 신청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갈륨 공급의 94%, 게르마늄 공급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두 금속은 칩 제조, 통신 장비 및 국방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전문 용도로 사용된다. 중국은 작년 10 월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흑연 제품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다. 전 세계 흑연의 90% 이상을 전기차 배터리 음극에 사용되는 소재로 정제하는데 이 소재 역시 중국이 대부분 생산한다. 지난달엔 희토류 자석을 만드는 기술의 수출을 금지했다. 이미 중요 물질을 추출하고 분리하는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 ⑦희대의 니켈 사기 사건, 급락한 시세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연초 T 당 3 만달러에 달했던 니켈 가격은 연말 T 당 1 만 6000 달러대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부진했고, 코발트가 풍부한 인도네시아의 공급은 증가한

## I . NEWS

탓이다. 이런 가운데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작년 초 세계 최대 원자재 브로커인 스위스 트라피구라가 6 억원 규모 니켈 사기를 당했다며 인도 기업인 TMT 메탈, UD 트레이딩 그룹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가치 없는 돌맹이를 선적해 배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 측은 트라피구라 소속 트레이더가 이 같은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 ⑧ 15 년만에 최고가 기록한 우라늄

작년 11 월 우라늄은 원전 수요 급증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15 년 만에 처음으로 파운드당 80 달러를 돌파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우라늄정광(엘로케이크) 공급량은 1 억 4500 만 파운드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연간 수요는 1 억 8000 만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60 개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더 많은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다. 뒤늦게 자본이 우라늄 채굴과 원전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지만 향후 몇 년간 우라늄 공급 부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⑨ 급등한 코코아, 커피 가격

코코아 선물 가격은 지난해 70% 넘게 올라 46 년 만에 최고가(T 당 4478 달러)를 기록했다. 주산지인 서아프리카 일대가 홍수와 검은 곰팡이병 등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커피콩(아라비카) 선물가격도 지난해 27%가량 올랐다. 주요 생산지로 분류되는 브라질의 건조한 기상으로 공급 압박 우려가 부각되면서 아라비카 커피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2 달러를 넘기기도 했다.

냉동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도 지난해 80%가량 뛰었다. 오렌지의 주요 재배지인 미국 플로리다 지역의 생산량이 질병과 잦은 폭풍으로 인해 감소한 탓에 작년 12 월 한때 파운드당 4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

### ⑩ 기상이변 속 브라질, 러시아 풍년, 캐나다 선방

우크라이나산 밀의 수출 차질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수급에 차질이 우려됐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러시아에서 풍년이 들어 북한 주민들까지 수혜를 입었다. 여름철 러시아에서 밀 농사에 적합한 날씨가 지속하면서 밀 수확량이 역대 최고 수준인 1 억 T 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7520 만 T)보다 약 33% 늘어난 수준이다. 캐나다도 우려했던 것만큼 흉작은 아니었다. 통계청은 올해 전체 밀 생산량을 3200 만 T 으로 추정했다. 이는 6 년 만에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지만 당초 추정치인 2980 만 T 보다는 증가했다. 새로운 추정치는 로이터 설문조사에서 업계 평균 예상치인 3110 만 T 도 상회했다. 옥수수 시장에서 브라질이 농사가 잘되면서,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 자리에 올랐다.

## I . NEWS

### 3. 새해 지구촌 10 대 화두...트럼프·신냉전·AI 확산 등 주목

글로벌 정세를 일거에 뒤집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부터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거론되는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까지.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4 년 새해에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10 대 추세를 선정해 1 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 월 대만 총통 선거부터 11 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70 여개 중대 선거가 열린다는 데 주목했다. 이 매체는 "전 세계에서 어느 때보다 많은 유권자에게 선거가 열려 지구촌 민주주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의미를 부각했다.

올해는 선거가 열리는 국가의 인구가 42 억명으로 역대 최초로 세계인구의 절반을 넘어선다. 이코노미스트는 "선거가 많아졌다고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많은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는 별도로 주목할 화두로 제시됐다. 이코노미스트는 11 월 미국 대선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유권자와 법원이 심판하는 자리라며 그의 재임 가능성을 30%로 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란 의혹에 시달리고 있으며 콜로라도, 메인 등 일부 주는 그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그러나 그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 중 선두를 유지하며 경합주에서 맞상대인 조 바이든(민주당) 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앞선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미국 대선은 기후정책부터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불신해 화석연료 사용을 지지하며 자국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10 월 7 일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도 뜨거운 감자로 지목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2 만명이 넘게 사망한 이번 전쟁이 더 큰 중동 전쟁으로 번질지, 평화를 위한 기반이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서 미국의 외교력 등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국지적 냉전이 가열된 것도 주목받았다. 특히 아프리카 사헬(사하라 사막의 남쪽 주변) 지역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아프리카에서는 2019 년 수단을 시작으로 말리, 기니, 차드,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가봉에서도 쿠데타가 발생했다.



## I . NEWS

---

미국과 중국의 진영구축에 따른 신냉전은 올해도 계속 심화해갈 추세로 주목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며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을 제한하면서 '신냉전'이라는 말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적었다.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필요한 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한 국가들의 행보도 하나의 주제로 선정됐다. 지구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절실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위한 리튬, 구리 등 광물이 지정학적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승자와 패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제적 불확실성도 올해를 지배할 화두로 꼽혔다. 서방 국가들의 경제는 작년에 예상보다 잘 버텼지만 아직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고금리가 더 오래 더 높게 지속되면 경기침체가 오지 않더라도 기업과 가계가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중국이 디플레이션(지속적 물가하락)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는 AI가 실생활에 더 많이 들어오면서 논쟁도 커질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관측했다. 기업은 도입을 서두르고 정부는 규제를 서두르고 기술기업은 첨단화를 서두르면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적의 규제가 무엇인지, 인류 존립에 대한 위협론이 선발주자들의 보호주의인지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하지 못한 오남용 사례가 돌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AI가 일자리와 선거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는 이미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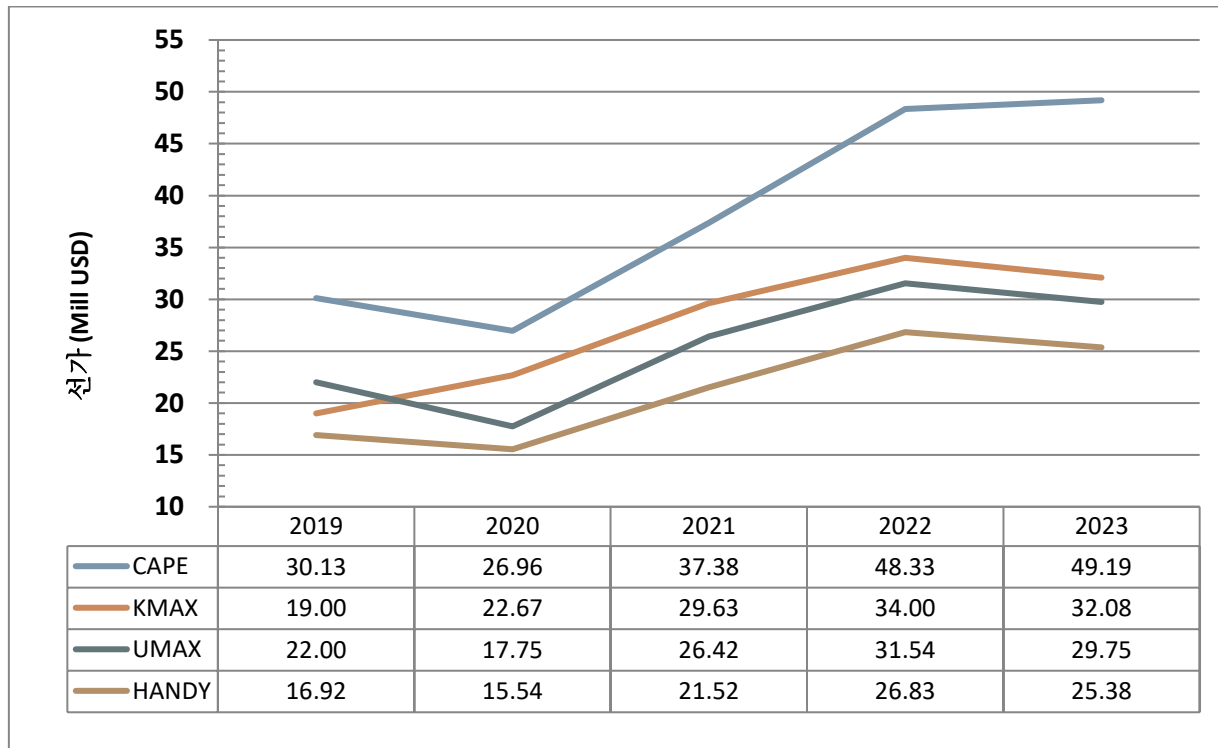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

연평균 선가	2019	2020	2021	2022	2023
<b>Capesize 180K</b> <small>*Eco-design based since 2021</small>	30.13	26.96	37.38	48.33	49.19
	-14.34%	-10.51%	38.64%	--	1.77%
<b>Kamsarmax 82K</b> <small>*76k before 2020</small>	19.00	22.67	29.63	34.00	32.08
	0.42%	19.30%	30.70%	14.75%	-5.64%
<b>Ultramax 60-61K</b>	22.00	17.75	26.42	31.54	29.75
	--	-19.32%	48.83%	19.40%	-5.68%
<b>SMAX 58K</b> <small>*Data available before 2021</small>	17.17	15.92	--	--	--
	-4.20%	-7.28%	--	--	--
<b>Handysize 37K</b>	16.92	15.54	21.52	26.83	25.38
	12.18%	-8.13%	38.47%	24.69%	-5.43%

### □ BC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 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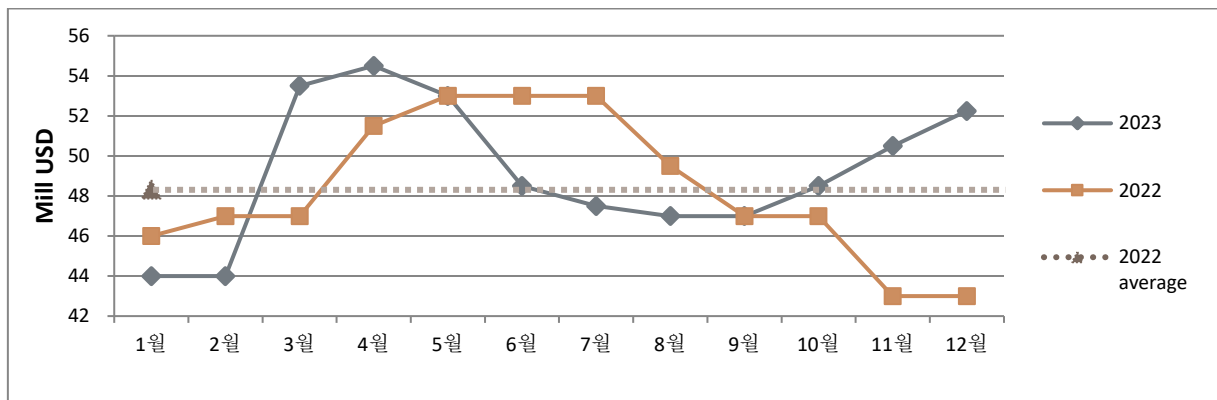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CAPE (180K, Eco.)	선가	44.00	44.00	53.50	54.50	53.00	48.50	47.50	47.00	47.00	48.50	50.50	52.25	49.19
	전월대비	2.3%	0.0%	21.6%	1.9%	-2.8%	-8.5%	-2.1%	-1.1%	0.0%	3.2%	4.1%	3.5%	--
	전년대비	-4.3%	-6.4%	13.8%	5.8%	0.0%	-8.5%	-10.4%	-5.1%	0.0%	3.2%	17.4%	21.5%	1.8%
KMAX (82K)	선가	30.00	30.00	32.50	34.00	33.00	31.50	31.50	31.50	32.00	32.00	33.00	34.00	32.08
	전월대비	0.0%	0.0%	8.3%	4.6%	-2.9%	-4.5%	0.0%	0.0%	1.6%	0.0%	3.1%	3.0%	--
	전년대비	-11.8%	-13.0%	-8.5%	-6.8%	-13.2%	-17.1%	-12.5%	-4.5%	3.2%	3.2%	8.2%	13.3%	-5.6%
UMAX (60- 61K)	선가	28.50	28.50	31.50	32.00	31.00	29.50	29.50	28.00	28.50	29.50	30.00	30.50	29.75
	전월대비	1.8%	0.0%	10.5%	1.6%	-3.1%	-4.8%	0.0%	-5.1%	1.8%	3.5%	1.7%	1.7%	--
	전년대비	-6.6%	-12.3%	-4.5%	-5.9%	-8.8%	-14.5%	-10.6%	-11.1%	-5.0%	-1.7%	9.1%	8.9%	-5.7%
HANDY (37K)	선가	24.50	24.50	26.00	26.50	26.00	25.00	24.50	24.00	25.00	25.50	26.50	26.50	25.38
	전월대비	4.3%	0.0%	6.1%	1.9%	-1.9%	-3.8%	-2.0%	-2.0%	4.2%	2.0%	3.9%	0.0%	--
	전년대비	-10.9%	-12.5%	-7.1%	-7.0%	-8.8%	-12.3%	-14.0%	-11.1%	-3.8%	4.1%	12.8%	12.8%	-5.4%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CAPE (180K, Eco.)		46.00	47.00	47.00	51.50	53.00	53.00	53.00	49.50	47.00	47.00	43.00	43.00	48.33
KMAX (82K)		34.00	34.50	35.50	36.50	38.00	38.00	36.00	33.00	31.00	31.00	30.50	30.00	34.00
SMAX (58K)		30.50	32.50	33.00	34.00	34.00	34.50	33.00	31.50	30.00	30.00	27.50	28.00	31.54
HANDY (37K)		27.50	28.00	28.00	28.50	28.50	28.50	28.50	27.00	26.00	24.50	23.50	23.50	2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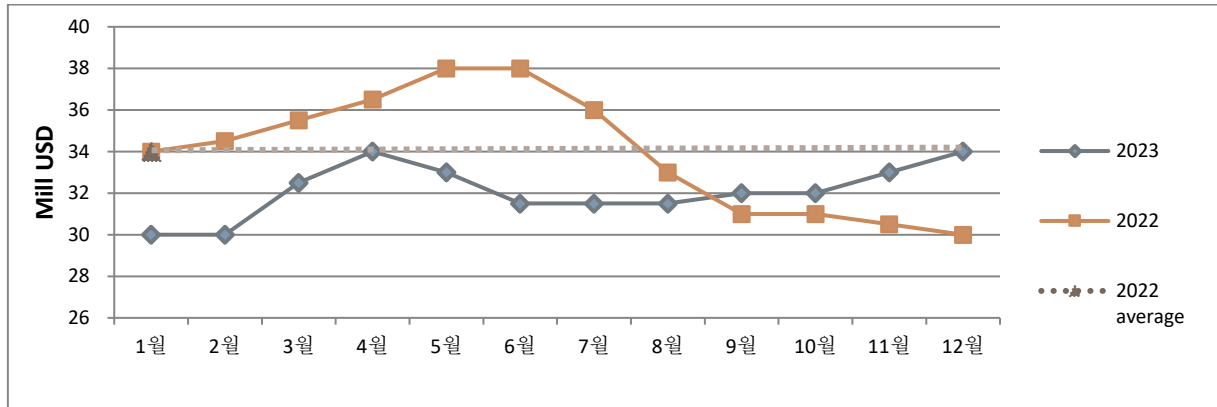
###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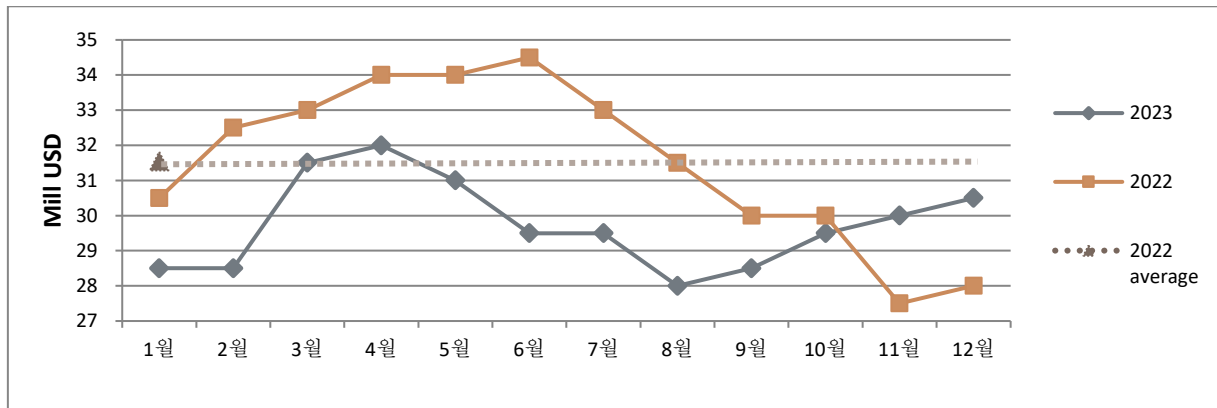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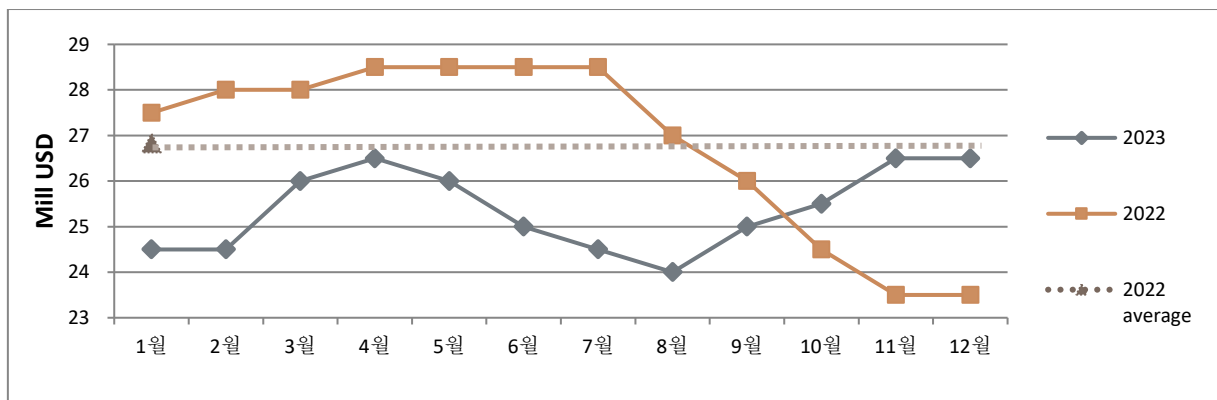
### □ Kamsarmax



### □ Ultramax & Supramax



### □ Handy





## II . BULK CARRIER

###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STAR BOVARIUS	61,602	2016	CHINA	B&W	C 4x30t	25.25	Greek buyer, eco-engine
BC	DESERT Rhapsody	53,820	2007	CHINA	B&W	C 4x36t	9.2	Undisclosed buyer
BC	RICHMOND PEARL	53,100	2009	CHINA	B&W	C 4x35t	10.8	Undisclosed buyer
GC	AGALI	28,202	2013	JAPAN	B&W	C 4x30.5t	13.2	Undisclosed buyer, log fit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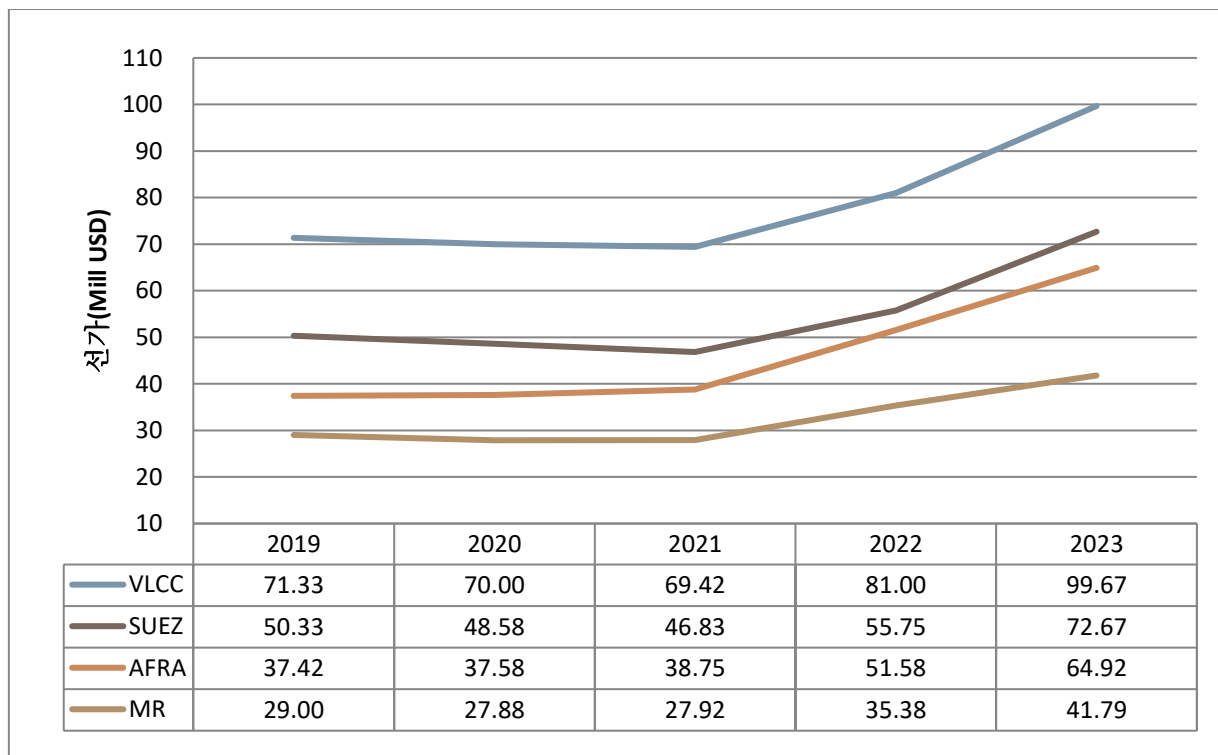
###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VLCC (310K)	71.33	70.00	69.42	81.00	99.67
	10.73%	-1.87%	-0.83%	16.69%	23.05%
Suezmax (160K)	50.33	48.58	46.83	55.75	72.67
	15.60%	-3.48%	-3.60%	19.04%	30.34%
Aframax (105K)	37.42	37.58	38.75	51.58	64.92
	17.85%	.45%	3.10%	33.12%	25.85%
MR (51K) <small>*Based on 49K till 2018</small>	29.00	27.88	27.92	35.38	41.79
	9.43%	-3.88%	.15%	26.72%	18.14%

#### □ TANKER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 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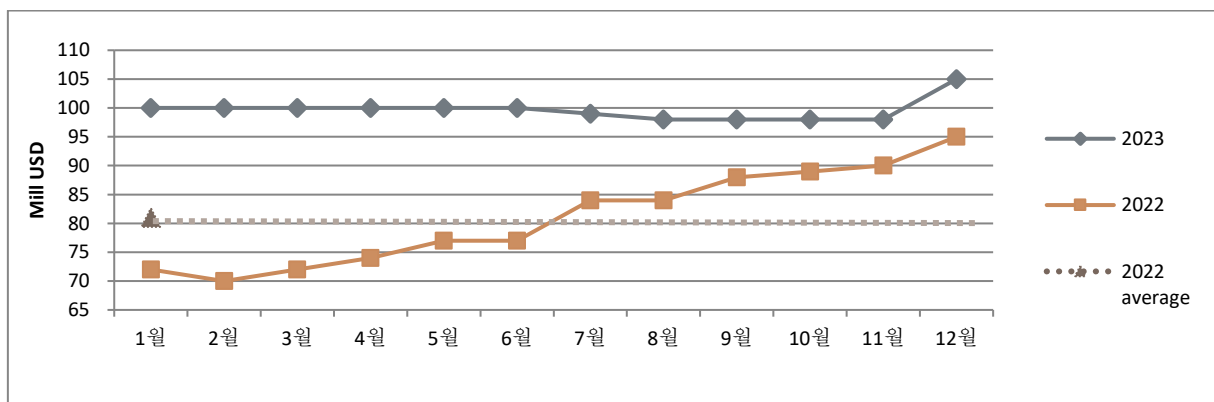




## III. TANKER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VLCC 310K	선가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9.00	98.00	98.00	98.00	98.00	105.00	99.67
	전월대비	5.3%	0.0%	0.0%	0.0%	0.0%	0.0%	-1.0%	-1.0%	0.0%	0.0%	0.0%	7.1%	-
	전년대비	38.9%	42.9%	38.9%	35.1%	29.9%	29.9%	17.9%	16.7%	11.4%	10.1%	8.9%	10.5%	23.0%
SUEZ 160K	선가	68.00	68.00	68.50	68.50	74.00	73.00	72.00	73.00	73.00	78.00	78.00	78.00	72.67
	전월대비	4.6%	0.0%	0.7%	0.0%	8.0%	-1.4%	-1.4%	1.4%	0.0%	6.8%	0.0%	0.0%	-
	전년대비	41.7%	44.7%	39.8%	34.3%	42.3%	35.2%	24.1%	23.7%	17.7%	25.8%	25.8%	20.0%	30.3%
AFRA 105K	선가	62.50	62.50	62.50	62.50	63.50	63.50	63.50	63.50	63.50	70.50	70.50	70.50	64.92
	전월대비	4.2%	0.0%	0.0%	0.0%	1.6%	0.0%	0.0%	0.0%	0.0%	11.0%	0.0%	0.0%	-
	전년대비	38.9%	38.9%	38.9%	33.0%	29.6%	29.6%	19.8%	17.6%	11.4%	23.7%	21.6%	17.5%	25.8%
MR 51K	선가	41.50	41.50	41.50	42.00	42.00	41.00	40.00	40.00	41.50	43.50	43.50	43.50	41.79
	전월대비	3.8%	0.0%	0.0%	1.2%	0.0%	-2.4%	-2.4%	0.0%	3.8%	4.8%	0.0%	0.0%	-
	전년대비	38.3%	38.3%	43.1%	29.2%	25.4%	22.4%	8.1%	0.0%	3.8%	11.5%	8.8%	8.8%	18.1%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year 평균	
VLCC	72.00	70.00	72.00	74.00	77.00	77.00	84.00	84.00	88.00	89.00	90.00	95.00	81.00	
SUEZ	48.00	47.00	49.00	51.00	52.00	54.00	58.00	59.00	62.00	62.00	62.00	65.00	55.75	
AFRA	45.00	45.00	45.00	47.00	49.00	49.00	53.00	54.00	57.00	57.00	58.00	60.00	51.58	
MR	30.00	30.00	29.00	32.50	33.50	33.50	37.00	40.00	40.00	39.00	40.00	40.00	3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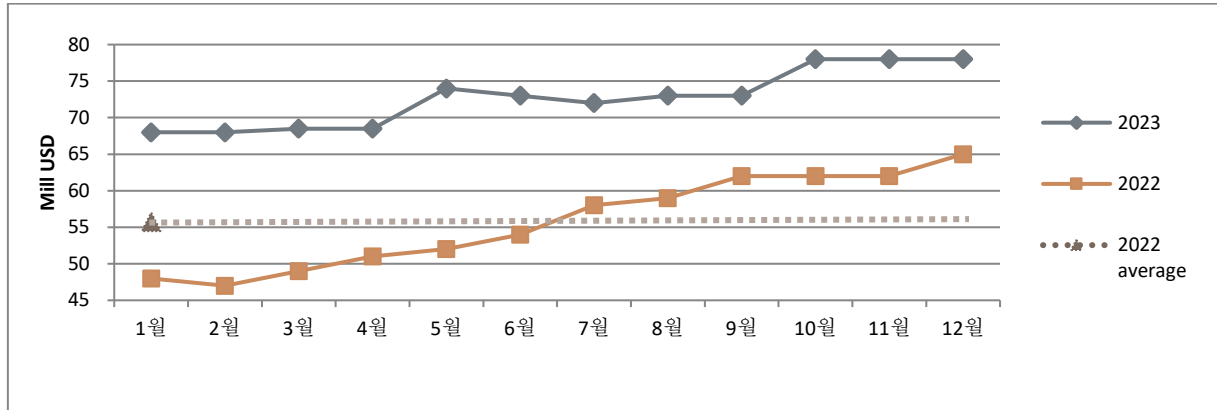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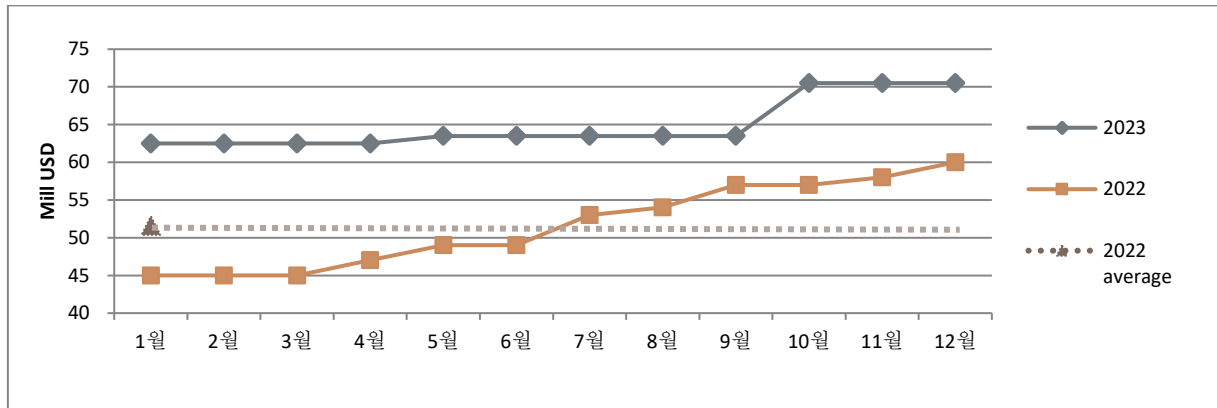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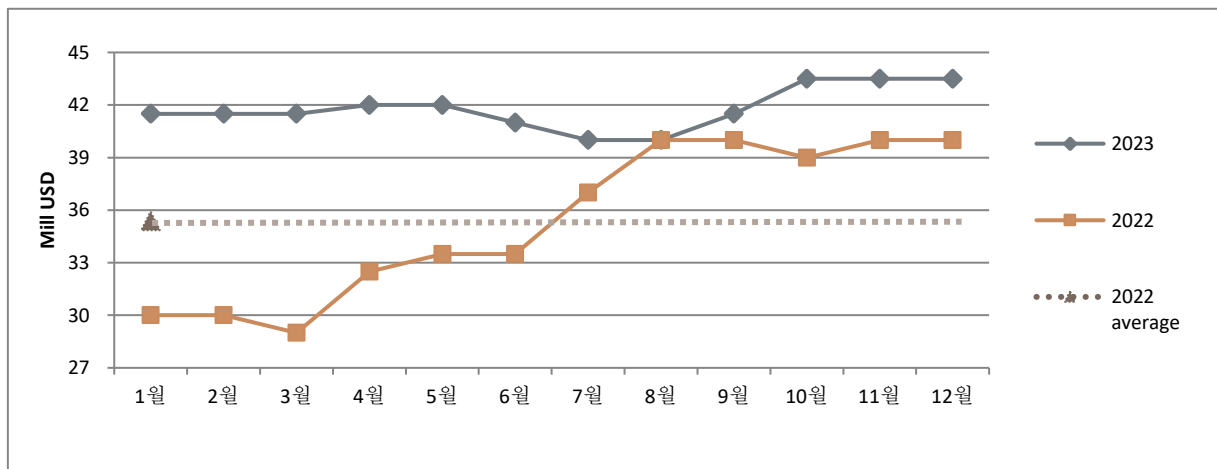
#### □ SUEZMAX-160K



#### □ AFRAMAX-105K



#### □ MR-51K







III. TANKER

Tank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DELOS	299,990	2019	KOREA	B&W		116	Undisclosed buyer, scrubber fitted
TANKER	SERENEA	158,583	2009	KOREA	B&W		45.3	Undisclosed buyer, scrubber fitted
TANKER	ALPINE AQUALINA	105,304	2011	KOREA	B&W		44.5	Undisclosed buyer, scrubber fitted
TANKER	ALPINE PEMBROKE	74,602	2010	KOREA	B&W		65-2EB	Swiss buyer (Advantage Tankers), epoxy coated
TANKER	ALPINE PIONEER	74,552	2011	KOREA	B&W			
TANKER	CHEMTRANS SEA	72,365	2004	CHINA	B&W		17	Undisclosed buyer
TANKER	CHEMTRANS MOON	72,365	2004	CHINA	B&W		17	
OIL/CHEM	HZ SINGAPURA	13,898	2022	CHINA	B&W	2	21.5	Turkish buyer, epoxy coated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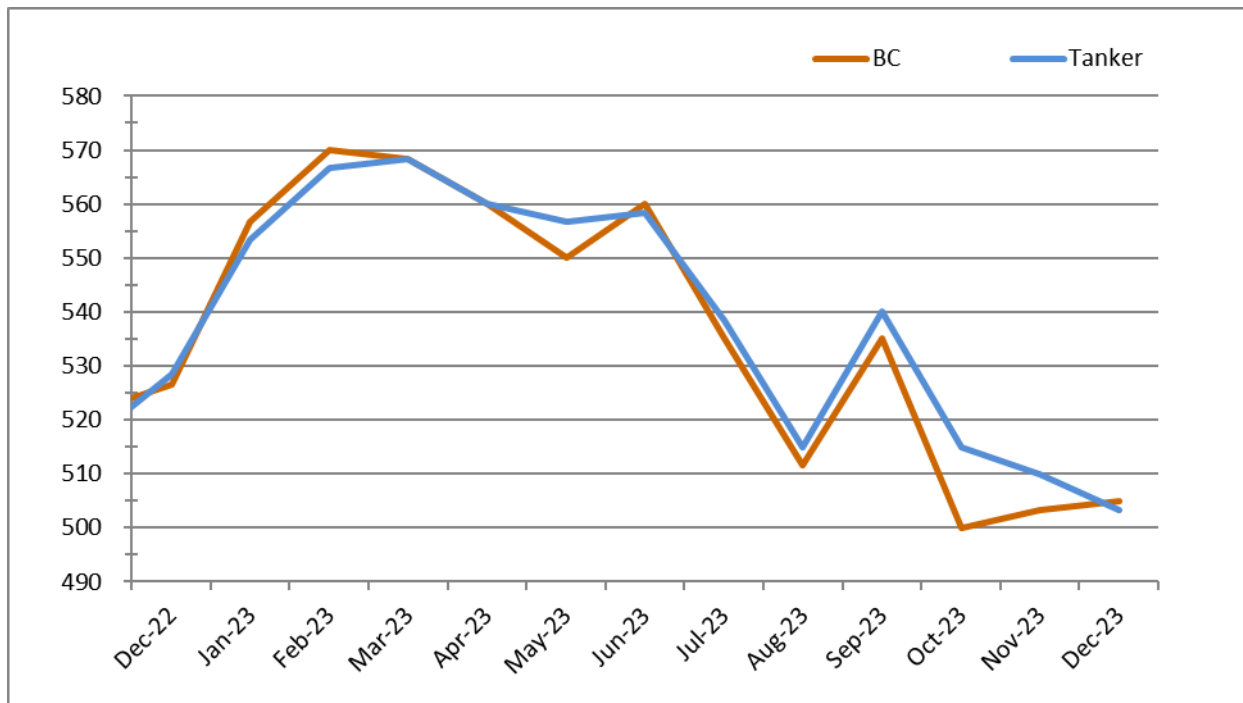


## IV. DEMOLITION

### 1) 해체선가

	2021 Average		2022 Average		2023 Average		2022.12	2023.12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USD/LDT	MoM	YoY
TANKER	526.81	52.9%	590.28	12.0%	540.42	-8.4%	528.33	503.33	-1.3%	-4.7%
BC	529.17	53.6%	588.56	70.8%	537.92	-8.6%	526.67	505.00	0.3%	-4.1%

❖ 기준 : 인도 해체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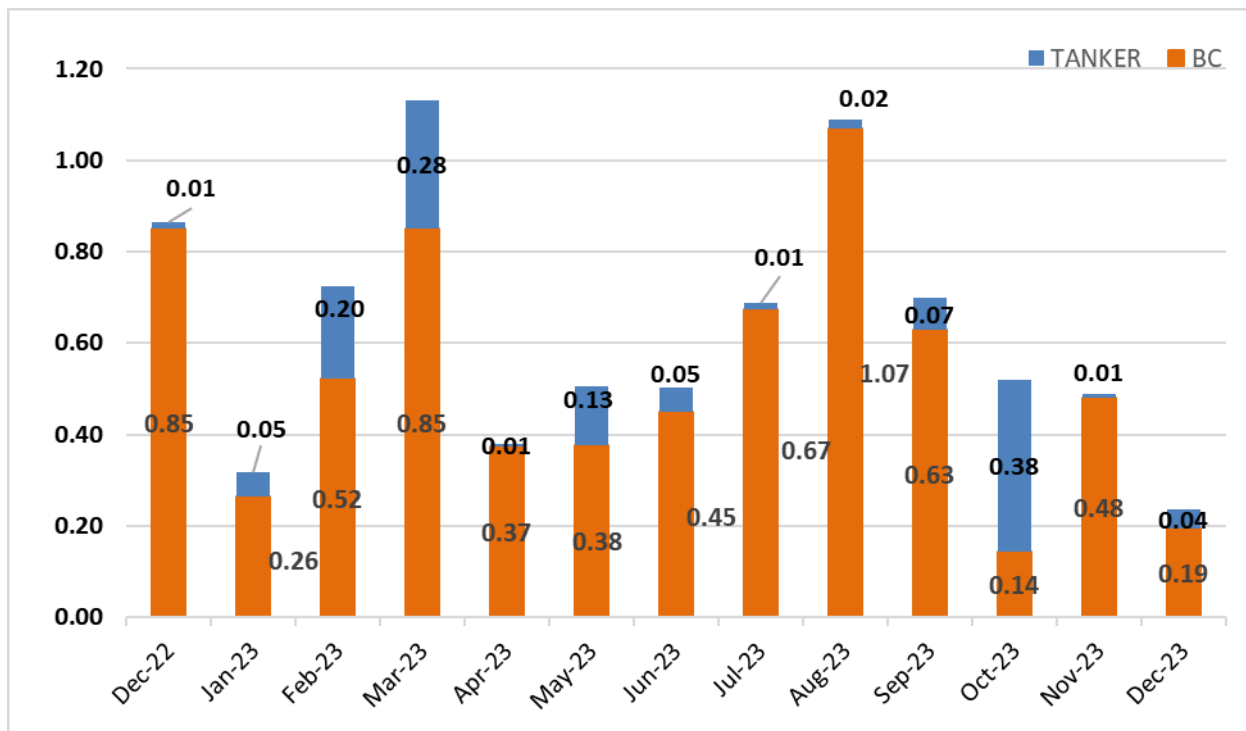
## IV. DEMOLITION

### 2) 해체선 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21		2022		2022.12		2023.12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YoY	No. of Vessel	YoY
TANKER	15.66	315	6.50	134	0.01	5	0.04	198.1%	2	-60.0%
*BC	6.34	123	4.48	63	0.85	12	0.19	-77.2%	8	-33.3%

\*BC incl. General cargo vessel

###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 IV. DEMOLITION

###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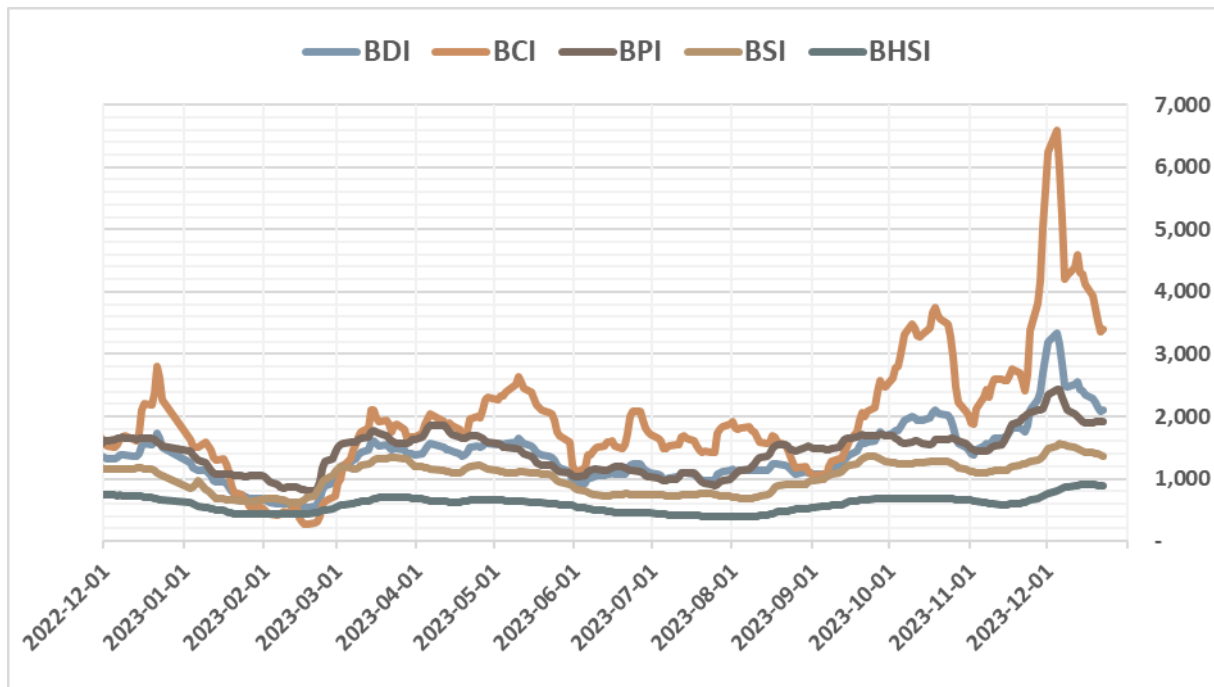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JIN HAI XI	28,615	5,937	1995	JAPAN	B&W	506	INDIAN
GC	YI CHENG 58	12,800	4,301	2007	--	--	490	BANGLADESHI
CONT	WISDOM GRACE	16,500	5,425	1998	JAPAN	B&W	535	INDIAN
CONT	SOL VALOUR	14,920	10,159	1997	KOREA	B&W	535	"AS IS" COLOMBO



## V . KEY INDICATORS

### 1) Baltic Index

	2023-12-22	2023-12-15	CHANGE	1 Year High	1 Year Low
BDI	2,094	2,348	▼254.00	3,346	530
BCI	3,398	4,113	▼715.00	6,582	271
BPI	1,909	1,900	▲9.00	2,441	809
BSI	1,369	1,426	▼57.00	1,565	625
BHSI	879	908	▼29.00	908	389





## V . KEY INDICATORS

### 2) Bunker Pric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VLSFO	618.50	▲5.00	554.50	▼2.50	567.00	▼16.50
MGO	746.50	▼17.00	756.00	▼15.50	774.50	▼25.00
LSMGO	746.00	▼17.50	756.00	▼15.50	-	-
IFO380	460.00	▼4.50	447.50	▼11.50	500.00	▼3.00

❖기준일 : 12 월 29 일 기준

### 3) Exchange Rate

구분	2023-12-29	2023-12-22	CHANGE
미국 USD	1289.40	1303.80	▼14.40
영국 GBP	1641.79	1653.87	▼12.08
유로 EUR	1426.59	1435.29	▼8.70
중국 CNY	180.84	182.39	▼1.55
일본 JPY (100)	912.66	917.59	▼4.93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 VI. ISSUE & TREND

---

### [시사 상식] 인공지능(AI) 동맹

◆ '인공지능(AI) 동맹'은 메타와 IBM 등 50 개 AI 관련 기업과 기관이 2023 년 12 월 5 일 결성한 연합체다.

앞서 오픈 AI 가 개발한 챗 GPT 가 출시 1 년 만에 생성형 AI 개발 열풍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인공지능 동맹은 챗 GPT 를 따라잡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AI 동맹에는 미국 인텔과 AMD, 오라클 등 기업과 사일로 AI 와 스태빌리티 AI 등 스타트업이 이름을 올렸다. 예일대와 코넬대 등 대학과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국립과학재단(NSF) 등 미국 정부 기관도 참여한다.

인공지능 동맹은 빅테크와 학계 등이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오픈 소스로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메타의 경우 오픈 AI 와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과 달리 지난 7 월 자체 LLM 인 '라마(Llama)2'를 공개하면서 관련 기술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 공개한 바 있다.

AI 동맹은 우선 규제와 안전 등 6 개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조만간 AI 안전 및 모델 검증을 위한 도구를 출시할 계획이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



## VII. CONTACT DETAILS

STL GLOBAL CO., LTD.		
<b>Marino Hwang(황재웅)</b> President T. 070-7771-6400		
<b>Fleet &amp; Chartering Operation</b> biz@stlkorea.com	<b>Sancho Kim(김현진)</b> Managing Director T. 070-7771-6404	
	<b>H.S. Lee(이현성)</b> Director T. 070-7771-6412	<b>Mike Hong(홍창목)</b> Director T. 070-7771-6417
	<b>Henry S.H. Oh(오수현)</b>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2	<b>Victor Song(송은석)</b>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14
	<b>Anna Lee(이혜란)</b>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3	<b>Joovi Park(박주비)</b> Assistant General Manager T. 070-7771-6419
<b>Agency Operation</b> operation@stlkorea.com	<b>Jennifer Park(박영단)</b>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7	<b>Hayden Son(손호영)</b> Assistant Manager T. 070-7771-6401
<b>Ferrous Logistics &amp; Warehouse Management</b> ops@stlkorea.com	<b>Jena Ahn(안지영)</b>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5	<b>Joanne Jin(진정식)</b>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6
STL SHIPPING CO., LTD.		
<b>Sale and Purchase Broking</b> snp@stlkorea.com	<b>Neal S.I. Kwon(권순일)</b> President T. 070-7771-6410	
	<b>Jack Kim(김종수)</b> Director T. 070-7771-6411	<b>Nova Cha(차혜정)</b> Team member T. 070-7771-6409
T. 02-776-0840(Rep.)   E. seoul@stlkorea.com   W. www.stlkorea.com   (04146) 101-13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STL G-TOUR		Jeonnam Yacht Academy	
기업/일반 단체 항공예약 실장 김영하	T. 1661-8388 T. 070-4800-0151 W. www.stlgtour.com E. tour@stlgtour.com	보트/요트 면허취득 실장이진행 대리이정택	T. 061-247-0331 T. 010-2777-4027 W. www.stlyacht.com E. academy@stlyacht.com